

보도시점 (전매체) 9. 5.(화) 14:00

디지털 제조혁신 정책 의견 수렴을 위한 업계 대표 및 전문가 참여 간담회 개최

- 오기웅 차관, 현장 수요에 기반한 「신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 마련을 위해
업계 및 전문가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향후 디지털 제조혁신 정책 방향 제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향후 정부의 디지털 제조혁신 방향과 실천전략을 담은 「신(新)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하기 전에 의견 수렴을 위한 중소기업계 대표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동 추진전략에 대해 다양한 의견청취를 위해 지능형공장 도입기업과 공급기업 중에서 소기업부터 중견기업, 대중소 상생형 참여 대기업 등과 디지털전환 현장전문가, 유관기관 담당자 등 다양하게 참석했다.

오기웅 차관은 우리나라 제조업이 차지하는 국민경제적 중요성과 세계(글로벌) 제조강국들의 디지털화·지능화를 통한 제조패권 확보 경쟁을 언급하면서,

“그간 기업역량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 주도의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현 정부의 중소기업 제조혁신 전략을 담은 「신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향후 디지털 제조혁신 정책은 질적 제고와 양적 확산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구체적으로 디지털전환 역량이 우수한 기업은 고도화를 집중 지원하고, 역량이 다소 부족한 기업은 기초단계 지능형공장, 로봇 및 자동화 설비 등을 기업 상황에 맞게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동 추진전략에는 ‘기업의 디지털전환 역량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방안’, ‘제조데이터 표준화 및 데이터 공유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데이터 경제 기반을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현장 의견을 준비 중인 대책에 적극 반영하고, 향후 디지털 제조혁신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지역기업정책관 제조혁신과	책임자	과 장	권순재 (044-204-7260)
		담당자	서기관	우창훈 (044-204-7261)
		담당자	사무관	염정수 (044-204-7255)



□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23.9.5(화) 14:00~16:00 / 대한상의 B2 국제회의장 (서울시 중구)
- (참석자)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중소기업 대표, 현장 전문가 등 20명 내외
 - * **우리부** (3) : 차관, 지역기업정책관, 제조혁신과장
 - 업계** (12) : 다양한 의견청취를 위해 제조기업과 제조SW기업 중 소기업에서 중견기업, 상생형 참여 대기업 등 참석 (참석기업 현황은 붙임2)
 - 전문가** (5) : 안광현 스마트제조혁신 추진단장, 오종훈 KAIST 교수, 송정훈 경북 스마트 제조혁신센터장, 이동호 스마트마이스터, 박문구 삼성KPMG 디지털혁신센터장
- ** 「新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제조혁신 관련 기관·단체, 전문가 등이 청중으로 참석
- (주요 내용) 향후 발표예정인 「新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 및 제조혁신 정책에 대한 업계 및 전문가 의견 수렴

□ **세부 일정(안)**

시간		주요 내용	비고
간담회	14:00~14:05	5' ■ 참석자 기념 촬영	진행자
	14:05~14:10	5' ■ 참석자 소개	진행자
	14:10~14:15	5' ■ 모두말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14:15~14:18	3' ■ 동영상 시청	진행자
	14:18~14:25	7' ■ 新디지털 제조혁신 정책방향 발표	제조혁신과장
	14:25~15:55	90' ■ 현장의견 청취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주재)	참석자 전원
	15:55~16:00	5' ■ 마무리 말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모두말씀까지 대외 공개, 이후 간담회는 비공개

구분	업체명	참석자	참고사항
도입기업	(주)태림산업	오경진 대표	K-스마트등대공장
	(주)네오넌트	조인호 대표	K-스마트등대공장
	태림포장(주)	정병채 부사장	디지털 협업공장 대중소 상생형 주관기관
	(주)서울엔지니어링	이해양 대표	뿌리업종 스마트공장
	(주)동일프라텍	김지현 대표	AI솔루션 실증사업 참여
	(주)진일써핀	이효일 대표	로봇활용 지원사업 참여
	하나테크닉 클샤프트	정성래 대표	뿌리기업 자동화사업 참여
공급기업	LS일렉트릭(주)	권봉현 부사장	대중소 상생형 주관기관
	(주)시즐	이지현 대표	여성창업경진대회 중소기업부장관상('21)
	엠아이큐브솔루션	박문원 대표	코스닥 상장('23)
	마키나락스	윤성호 대표	세계 100대 SI기업 선정('23)
대중소 상생형	삼성전자	김동욱 부사장	ESG&스마트공장 지원센터

□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23.9.5(화) 14:00~16:00 / 대한상의 B2 국제회의장 (서울시 중구)
- (참석자)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중소기업 대표, 현장 전문가 등 20명 내외
 - * **우리부** (3) : 차관, 지역기업정책관, 제조혁신과장
 - 업계** (12) : 다양한 의견청취를 위해 제조기업과 제조SW기업 중 소기업에서 중견기업, 상생형 참여 대기업 등 참석 (참석기업 현황은 붙임2)
 - 전문가** (5) : 안광현 스마트제조혁신 추진단장, 오종훈 KAIST 교수, 송정훈 경북 스마트 제조혁신센터장, 이동호 스마트마이스터, 박문구 삼성KPMG 디지털혁신센터장
- ** 「新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제조혁신 관련 기관·단체, 전문가 등이 청중으로 참석
- (주요 내용) 향후 발표예정인 「新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 및 제조혁신 정책에 대한 업계 및 전문가 의견 수렴

□ **세부 일정(안)**

시간		주요 내용	비고
간담회	14:00~14:05	5' ■ 참석자 기념 촬영	진행자
	14:05~14:10	5' ■ 참석자 소개	진행자
	14:10~14:15	5' ■ 모두말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14:15~14:18	3' ■ 동영상 시청	진행자
	14:18~14:25	7' ■ 新디지털 제조혁신 정책방향 발표	제조혁신과장
	14:25~15:55	90' ■ 현장의견 청취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주재)	참석자 전원
	15:55~16:00	5' ■ 마무리 말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모두말씀까지 대외 공개, 이후 간담회는 비공개

구분	업체명	참석자	참고사항
도입기업	(주)태림산업	오경진 대표	K-스마트등대공장
	(주)네오넌트	조인호 대표	K-스마트등대공장
	태림포장(주)	정병채 부사장	디지털 협업공장 대중소 상생형 주관기관
	(주)서울엔지니어링	이해양 대표	뿌리업종 스마트공장
	(주)동일프라텍	김지현 대표	AI솔루션 실증사업 참여
	(주)진일써핀	이효일 대표	로봇활용 지원사업 참여
	하나테크닉 클샤프트	정성래 대표	뿌리기업 자동화사업 참여
공급기업	LS일렉트릭(주)	권봉현 부사장	대중소 상생형 주관기관
	(주)시즐	이지현 대표	여성창업경진대회 중소기업부장관상('21)
	엠아이큐브솔루션	박문원 대표	코스닥 상장('23)
	마키나락스	윤성호 대표	세계 100대 SI기업 선정('23)
대중소 상생형	삼성전자	김동욱 부사장	ESG&스마트공장 지원센터

<인사말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오기용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중소기업 대표님들과 전문가 여러분들,

그리고 유관기관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사의 의의>

최근 글로벌 경제에서는 디지털 전환이 핵심 화두이고,

이는 제조기업들에게 위협이자

또 다른 성장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제조강국 도약을 위한

중소기업 디지털 제조혁신”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제조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 스마트공장 보급정책의 성과와 반성을 토대로

「신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는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제조혁신 정책의
청사진으로 마련한 금번 대책에 대해
기업인들과 전문가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직접 듣고
보완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제조업의 위상 및 해외 동향>

우리나라는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세계 2위이고
국내 일자리 450만개, 수출의 84%를 담당하는
제조업이 핵심인 나라입니다.

미·중 갈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의 여건에서
제조업은 국내외적으로 훨씬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주요국들은 제조업 유치에 위한 조세감면과
환경규제의 무역장벽화 등으로
자국내 제조업의 유치와 부흥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독일 등 선진 제조강국들은
제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공지능, 디지털 트윈 도입 등 디지털 전환 촉진과
제조데이터 표준 확산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간 제조혁신 정책의 공과>

정부에서도 이러한 제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조경쟁력 강화를 위해
'14년부터 정부 주도로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해 왔습니다.

단기간에 스마트공장 3만 개 보급이라는 성과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기초단계 위주의 양적 확대와
뿌려주기식 정책으로 여러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사업추진으로
구축 후 솔루션 활용률이 떨어지거나*

* 스마트공장 지원기업의 23.6%는 지원 SW의 50% 미만 활용

기업간 상호 표준화된 데이터 교환 미흡으로
구축성과가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정부 주도의 정책은
준비 없는 기업, 역량 부족 기업 등의 참여로
페이백 등 부정행위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제조혁신 정책방향 논의>

이러한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글로벌 중추 제조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신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디지털 제조혁신 예산 축소에 대해
업계에서 많은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간은 그간의 정책추진에 대해
냉정하게 되돌아보는 시기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간의 디지털 제조혁신 정책은
정부 주도의 뿌려주기식 정책으로
기초단계 위주의 스마트공장 양적 확산에 치중했습니다.

앞으로의 디지털 제조혁신 정책은
질적 도약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AI, 디지털 트윈 등이 적용된
고도화된 지능형공장으로 전환을 견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조현장에서는 기초단계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기초단계는 수작업 공정을
디지털화된 제조공정 및 생산관리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구인난 해소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
현실적 수요가 많은
로봇 및 자동화설비를 중점 보급해서
지능형공장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별도 설명이 있겠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업의 디지털전환 역량에 따라
역량이 우수하거나 일정 수준에 이른 기업은
디지털 전환 고도화를 집중 지원하고,
디지털전환 역량이 다소 부족한 기업은
고도화단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로봇 및 자동화 설비, 기초단계 지능형공장 등을
기업 상황에 맞게 지자체·민간과 함께 지원하겠습니다.

한편, 디지털 제조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제표준모델 기반의 제조데이터 표준화를 추진하고,
기업간, 공정간 원활한 데이터 공유를 통해
데이터 경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이 자리는 「신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에 대해
많은 의견을 듣는 자리입니다.
제조현장의 시각, 그리고 전문가의 관점에서
가감없이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에서 아무리 정책적 개선 노력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함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말씀해주신 의견은 충실히 검토하여
더 나은 디지털 제조혁신 정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